"대한민국 에너지 미래, 인공태양 연구시설을 나주로"

도, 나주서 에너지산업의 날 기념식 미래 핵융합에너지 거점 도약 다짐

전남도는 나주시와 함께 제3회 에너지 지거점 도약'을 다짐했다. 산업의 날 기념식을 지난 17일 한국에너지 공과대학교(KENTECH)에서 열어 '대한 지수도'를 지향하는 전남도 산·학·연·관

전남 에너지산업의 날은 '대한민국 에너 명이 참석했다.

년부터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조익노 기후환경에너지부 전력 촬영, 네트워킹 순으로 진행됐다. 산업정책관, 정현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

민국 에너지 수도 전남, 미래 핵융합 에너 기관의 자긍심을 높이고, 에너지산업 분야 는 슬로건 아래 나주시립합창단 식전 공 교 총장상, 전남테크노파크 원장상 등 17

소통과 협력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2023 연, 개회사 및 축사, 유공자 시상, 도내 에 명이 포상 또는 감사패를 받았다. 너지기업 우수사례 발표, 퍼포먼스, 기념

창이 수여됐다. 이 외에도 나주시장상, 한 행사는 '오늘의 약속, 내일의 미래로'라 국전력공사 사장상,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인공태양 연구시설' 전남 유치 퍼포먼스 전을 위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에선 미래 핵심 에너지 기술인 인공태양 연 장, 윤병태 나주시장 등 주요 내빈과 에너 에 기여한 공로로 정광래 가나이엔지㈜ 대 너지 기술의 중심지로 도약하길 염원하는 운 박수 속에 진행된 퍼포먼스는 전남의 미 래 비전을 대내외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

행사 후반에는 지자체와 공공기관, 기업

의 네트워킹 시간이 마련돼 에너지산업 발

정현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이재 시상식에서는 전남도 에너지산업 발전 구시설 유치를 통해, 전남이 미래 핵융합 에 명 정부 출범과 함께 대한민국 AI 3강 도 약과 에너지 대전환이 시작됐고, 그 중심 지기업 대표, 관계 기관 임직원 등 150여 표, 양수양 ㈜티디엘 이사에게 도지사 표 상징적 의미를 표현했다. 참석자들의 뜨거 에 전남이 있다"며 "대한민국의 AI·에너 지산업의 도약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목지기동대, 7년의 믿음과 앞으로의

18일 전남도청 김대중강당에서 열린 '2025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성과공유대회'에서 '복지기동대. 7년의 믿음과 앞으로의 약속'이란 주제로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참석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전남도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명품 복지시책 우뚝

성과공유대회…7년간 전남 가구의 30% 생활안정 등 지원

'우리동네 복지기동대'가 명품 복지시책 활안정 지원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열었다. 복지기동대는 지난 7년간 생활안 가구를 지원했다.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민선 7~8기 도 지사 공약사업으로 2019년 4월 출범했으 며, 현재 297개 모든 읍면동에서 5200여 22개 시군과 297개 읍면동 복지기동대 수상을, 진도군과 여수시는 각각 장려상 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대표 공약사업인 명의 복지기동대원이 생활불편 개선과 생

민관 협력 기반의 성공적인 복지사례로 전남도는 18일 도청 김대중강당에서 인정받아 2023년 기획재정부 복권기금사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성과공유대회를 입에 선정, 2026년까지 103억원의 국비 우수 시군 시상, 대회사, 축하공연, 칭찬대 를 지원받는다. 이를 바탕으로 전남도는 정을 위해 전남 가구의 30%가 넘는 30만 복지기동대 활동을 보다 촘촘하고 폭넓게 확대하고 있다.

사, 구복규 화순군수와 시군 부단체장,

원, 협력·협약 기관 관계자 등 약 1200명 을 받았다. 이 참석한 가운데 '복지기동대, 7년의 민 음과 앞으로의 약속'이라는 주제로 열렸 다. 복지기동대 7년 활동 성과를 중심으 로 시군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미래 방 향을 제시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행시는 유공자 표창(41명), 성과평가 원 릴레이 인터뷰, 시군 우수사례 발표와 복지기동대원 토크쇼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성과공유행사는 김영록 전남도지 대상 영예를 안아 10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고, 해남군이 최우수상, 완도군은 우

부대행사로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찾아 가는 전남행복버스, 복지위기알림앱, 지 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전시 · 홍보부스가 운영돼 다양한 지역 복지 서비스를 홍보

김영록 지사는 "복지기동대가 지난 7년 간 이웃의 일상 속에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했다. 앞으로도 대원들이 자부심 을 갖고 활동하도록 든든히 지원하겠다" 복지기동대 성과평가 결과, 화순군이 며 "우리동네 복지기동대가 대한민국 대 표 복지 시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전국적으 로 확산하도록 정부에 적극 제안하겠다" 박정렬 기자 holbul@

민주, 당헌・당규 개정안 '의견수렴' 변경

투표자격 통상 6개월→10월 당비 납부로 변경 조승래 "오해 생긴 부분 당원들께 죄송" 글 올려.

지방선거 후보 공천 과정에서 권리당원의 것으로 풀이된다. 표심을 강화하기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 을 '전당원 투표'에 부치기로 했다가 '당 원약 164만7000여명을 대상으로 전당원 원 의견수렴'이라고 변경했다.

정 대표는 지난 17일 대의원과 권리당 원의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바꾸기 위 권리당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투표를 이른 한 전당원 투표 실시를 밝혔다.

하지만 이날 투표 자격에 대한 논란이 당비 납부'한 당원에게 통상 부여된다. 불거지자 '당원주권시대를 위한 전당원투 수렴을 위한 당원투표안내'라고 바꿨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 "당원 주 투표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권 확립과 지방선거에 권리당원 참여 확 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며 "이 과정에 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페이스북에 에 불신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적었다.

글을 올렸다. 절차가 의결을 위한 당원 자격에 대한 논 리행사 기준(권리행사 시행일 6개월 전 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입장, 12개월 이내 6회 이상 당비 납부) 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해 투표했을 것이 다. 내년 지선 권리 행사는 이 기준이 적 용된다"고 말했다.

즉 의결권을 가진 권리당원 모두가 참 여하는 공식 투표라기보다는 당원들에게

더불어민주당이 18일 당지도부 선거와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 형식으로 규정한

민주당은 '10월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 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당헌·당규에 따르면 전당원 투표는 다. 권리당원의 투표 자격은 '6개월 이상

하지만 민주당의 공지는 참여 대상을 표'라고 했던 기존 공고를 '권리당원 의견 지난 10월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게 발송됐다. 10월 한 달만 당비를 납부해도

이에 이언주 최고위원은 지난 17일 페 대를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을 마련해 의 이스북에 "그동안 당원 투표 기준은 대부 분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이 서 오해가 생긴 부분에 대해 당원들께 죄 었기에, 갑작스러운 기준 변경은 지도부

조 사무총장은 "의견조사 대상은 의견 조 사무총장은 "당원 의견을 듣겠다는 절차가 아니므로 최근 당비를 납부한 자 로 의견 수렴의 폭을 넓혔다"며 "지난 10 란으로 전개돼 안타깝다"며 "의결권이 부 일 지역위원장 워크숍을 통해 개정을 설 여되는 투표라면 당헌·당규에 나오는 권 명했고 시·도당과 지역위원회에 공람하

> 박 수석대변인도 "2025년 10월 당비를 납부한 당원이라는 웹자보의 참여대상은 '투표일(여론조사일) 현재 기준 권리당원' 이라는 뜻"이라며 "당원투표 권리를 갖는 당원이라는 의미가 아니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이성오 기자 solee235@

"인증 등 인허가 장벽·지자체 역할 강화해야"

배진하 전 남구의원 민주 정책자문위원 임명

배진하 전 광주 남 구의원(사진)이 더불 어민주당 국가균형성 장특별위원회 정책자 문위원에 임명됐다. 지난 13일 출범한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 년)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인 '균형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특별위원회로, 자치분권을 기반으 로 한 균형성장 정책의 입법과 예산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배 위원은 "지역 소멸을 막고, 지방을 중심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도권 1극을 해체해 전국을 5개 초광역 권과 3개 특별자치도로 재편해 균형발전 을 달성하는 '5극·3특 체제'의 지역별 성 장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내년 지방선거 광주시의원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배진하 위원은 6대·7대 남 구의회 재선 의원이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광주시의회 인공지능실증도시특별위 원회는 18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3차 AI기업 조찬간담회'를 개최하고 헬스케 어 분야에서 AI 활용 전망과 현장의 애 로사항, 제도적 과제를 집중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AI·의료·헬스케어 기 강조했다. 업뿐 아니라 의료인 • 연구자 • 정책 담당 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의 애로사항과 정책 개선 필요사항을 폭넓 게 교환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발제에 나선 박병훈 티쓰리큐(주) 대표는 DX-AX 전주기 공통플랫폼 (AIOS)의 필요성과 도메인 특화 에이 전트 전략을 설명하며, "전국 병원과 함께 LLM 기반 대화형 헬스케어 에이 전트 실증을 하고 있지만 GMP·GS·의 료기기 인증 등 인허가 장벽이 높아 상 용화 과정에서 현실적 어려움이 크다"

고 말했다.

광주시의회 AI특위, 헬스케어 분야 3차 조찬 간담회

이어 "헬스케어 AI 경쟁력은 공통 에 명했다. 이전트가 아니라 '도메인 특화 에이전 트'에서 나오며, 광주는 이를 위한 생태 계(OS) 구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체계와의 연계가 필수"라며 "어르신돌

간담회에서는 AI 헬스케어 산업을 둘러싼 다양한 제안이 제기됐다.

양국승 트래시스 대표는 "AI 중심도 시 광주는 앞으로 데이터 중심도시로 전환해야 한다"며 "개인정보 규제로 인 해 데이터 가공・정제・공유가 어려운 만 큼, 광주가 가진 실증·규제프리 환경을 활용해 데이터 확보와 활용이 쉬운 정 책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도안 광주시 로봇가전의료산업과 장은 "광주시는생체이식형·뷰티·디지 털헬스 등 전략 분야를 중심으로 공통 를 개최한다.

데이터 · 플랫폼 · 에이전트 체계를 구축 하고 있다"며 "디지털헬스케어 플랫폼 1단계를 마무리했고,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2단계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설

서구의회 안형주 의원은 "헬스케 어 AI가 효과를 내려면 지역 통합돌봄 봄, 장애인 지원, 정신건강 관리 등 지 자체가 수행하는 돌봄 서비스를 AI 기 반으로 전환해 맞춤형 건강・복지 모델 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수훈 위원장은 "헬스케어 분야는 AI가 시민의 삶을 가장 빠르게 변화시 킬 수 있는 영역"이라며 "기업과 기관 의 현장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광 주형 AI 건강관리·통합돌봄 모델을 만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AI특위는 21일 '미래모빌리티 분야의 AI 활용'을 주제로 4차 간담회 장승기 기자 sky@



방의회 의원 협의회 대표들과 지방 선거 필승을 다짐하는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懺上

"지속가능 재정운용 체계로 북구 미래 대비" 정달성, 예산집행 효율화·재정확보 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

광주 북구의회 정달성 의원이 18일 북 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중심 재정으로 전 구평생학습관에서 '광주시 북구 재정진단 과 대응을 위한 예산집행 효율화 및 재정 확보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내년 본예산 심사를 앞 두고 북구의 재정 현황을 객관적으로 진 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화와 성과 중심 의 재정 구조 개선, 주민참여형 재원 확충 방안 등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에 나선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은 "지방재정의 위기는 단순한 예산 부족 이 아니라 구조적 경직성의 문제"라며 "지자체 스스로 지속적인 재정진단체계 를 구축하고, 지출 구조 재점검과 공유재 산 활용, 소규모 수익모델 개발, 고향사랑 기부금 확대 등 재원 다각화를 통해 주민

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정달성 의원이 좌장을 맡아 김봉 진 광주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조선익 참 여자치21 공동대표, 고영임 의원, 주민 등 50여 명과 함께 열띤 토론을 펼쳤다.

특히, 고영임 의원은 "재정관리의 성공 은 예산의 집행이 아닌 설계 단계에서부 터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정달성 의원은 "북구의 재정자립도는 12.5%로 광주 자치구 중 가장 낮은 수 준"이라며 "재정여건을 면밀히 진단해 지 속가능한 재정운용 체계를 확립하고, 미 래를 대비하는 건전한 재정기반을 마련해 가겠다"고 밝혔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